

경제포커스

■ 문화산업 투자시스템 개선 방안

옥성수(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산업기반팀장)

■ 서울시의 창의문화도시 계획

라도삼(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서울시의 창의문화도시 계획

라도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kuber21@sdi.re.kr

1. 개요

- 서울시는 2008년을 창의문화도시 원년으로 선언하고, 창의문화도시를 달성하는 컬처노믹스 추진 계획 발표
 - 컬처노믹스란 ‘문화(Culture)와 경제(Economics)’를 융합한 말로서, 문화를 통해 경제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문화의 경제적 가치를 달성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조어
 - 서울시는 예술창의의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도시의 문화환경을 조성하고, 도시의 가치와 경쟁력을 제고, 글로벌 Top 10 도시에 진입한다는 가정 하에 10대과제 148개 사업 발표

*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창의시정연구본부 연구위원
- 중앙대학교 신문학 박사
- 서울의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컬처노믹스 전략 연구(2007), 하이서울 페스티벌 발전 방안(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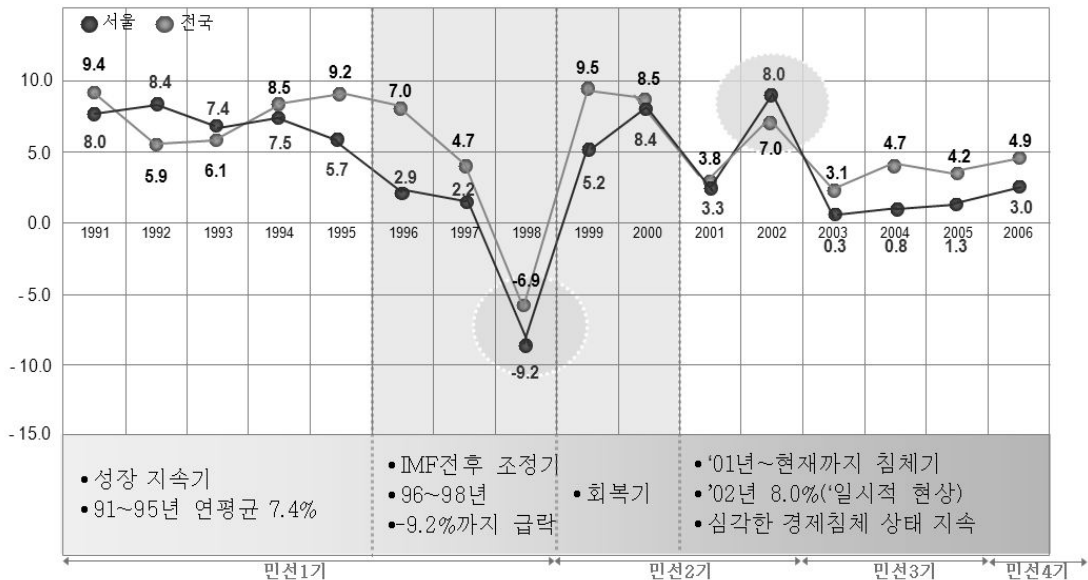
□ 계획의 목표는 △창의문화인구 확대, △도시브랜드 고양, △문화산업 증진, △관광 경쟁력 제고 등 4가지

- 창의문화인구는 현재의 42만 명에서 70만 명으로 늘리는 한편 도시브랜드는 44위에서 20위로, 문화산업은 세계9위에서 5위로, 관광경쟁력은 31위에서 20위로 상승시킨다는 것이 계획의 목표
- 이를 위해 서울시는 2010년까지 시정전반을 문화를 중심으로 변환하는 ‘창의문화시정’ 기반을 다지겠다는 목표 설정

2. 컬처노믹스 추진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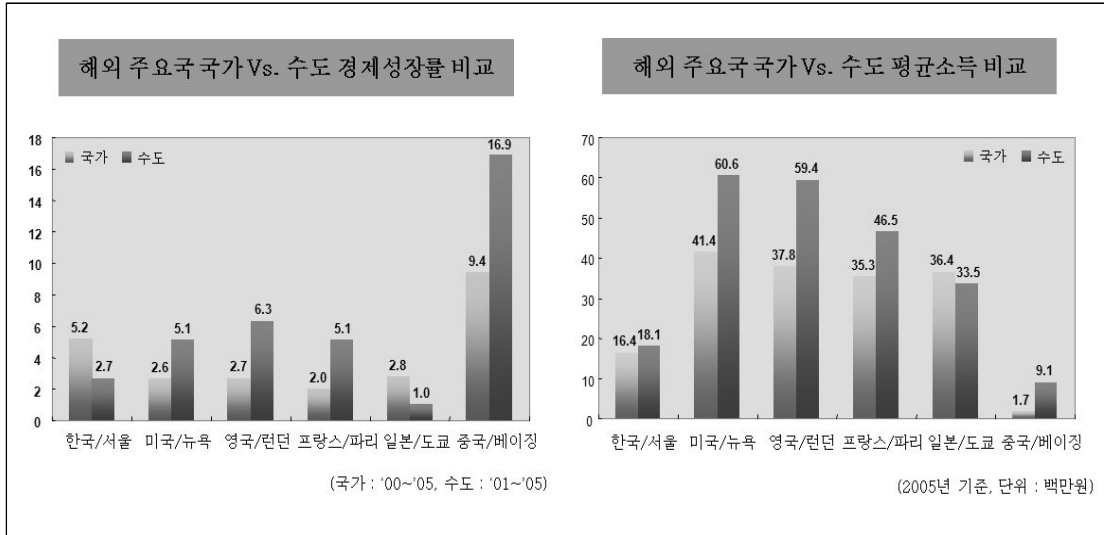
□ 취약한 서울의 경쟁력

- 1990년 중반 이래 서울의 경제는 지속적으로 하락
- 2002년 월드컵 특수로 인해 깜짝 성장(8.0%)이 이루어졌을 뿐, 2003년 0.3%에 이어 계속 1~3%대의 성장률 기록
- 이는 4% 이상 성장한 국가 성장률을 크게 잠식하는 요인 제공



〈그림 1〉 서울의 경제성장 추이(전국 기준과의 비교)

- 해외 도시의 경우, 수도가 경제성장 주도
- 뉴욕, 런던, 파리 등 선진 주요도시는 경제성장률 및 평균소득에서 국가를 압도
- 국민경제 전체를 이끌어 국가 성장 주도



<그림 2> 해외 주요국 국가와 수도의 경제지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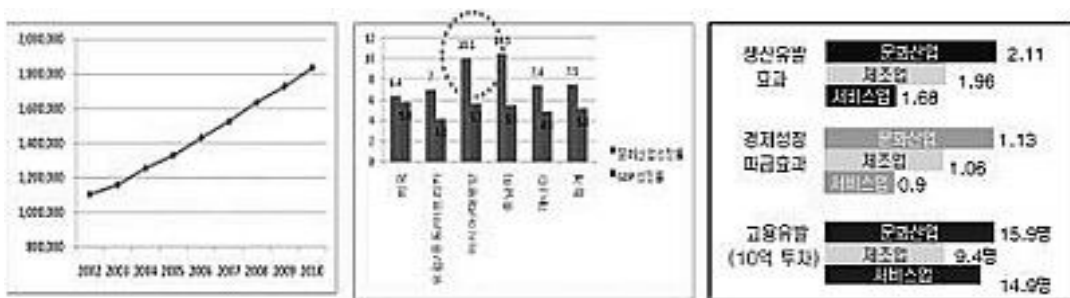
- 서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선진국형 산업구조 필요
- 창의에 기반 한 창조도시는 이미 2000년 초반부터 선진도시에서 나타난 주요한 흐름
- 뉴욕, 런던 등 대도시는 창의예술과 창조산업을 각각 주력산업으로 선정, 관련 인구 및 자본이 도시 내로 유입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 리차드 플로리다와 찰스 랜드리, 사사키 마사유키 등 창조도시 주창자들이 등장, 창조도시로의 전환을 주도



<그림 3> 창조도시 등장 배경과 과정

□ 급격히 성장하는 세계 문화산업과 문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 <Price Waterhouse Cooper>의 발표에 따르면, 세계문화산업의 성장률은 2010년까지 연6.3% 성장 전망(총1조8천억 달러)
- 특히 아시아 지역 성장 전망은 커 2010년까지 10.1% 성장 전망
- 현재 국내 시장은 70~80조 규모로 세계9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소한 세계 5위는 되어야 문화기반 경제형성이 가능하다는 계산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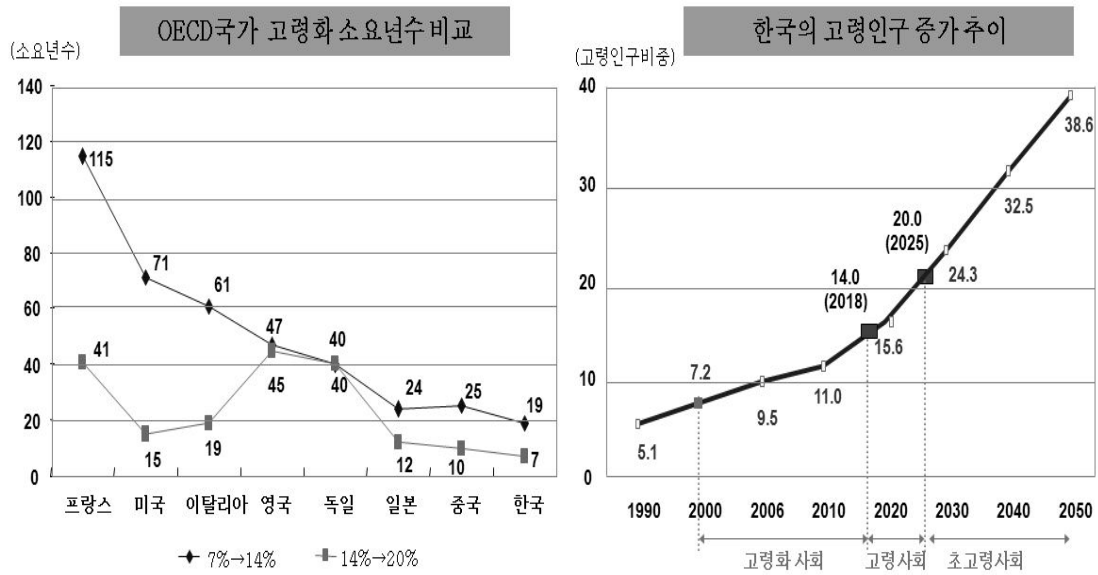


<그림 4> 문화산업의 성장추이와 경제적 파급효과

- 또한 문화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는 장점 보유
- 생산유발효과는 2.11, 경제성장파급효과는 1.13, 고용유발효과는 15.9명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보다 각각 큼

□ 3만 달러 시대, 시민의 문화에 대한 잠재적 욕구와 요구에 대한 대응

- 3만 달러 시대가 되면서, Well-being, LOHAS(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등과 같은 자기 삶에 대한 존중과 자기개발, 가족에 대한 욕구 등장
- 문화교육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문화향수 촉진과 문화서비스 개발 필요
- 특히 초고속 고령화에 따른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 또한 필요
- 급속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노후에 활동할 수 있는 문화적·예술적 교육을 사전에 실시하는 것이 필요



<그림 5> 국내외 주요 고령화 추이

- 즉 현재 40~50대 등을 대상으로 한 문화교육 및 관객화 프로젝트를 통해 이들이 노후에도 문화를 즐기며 여생을 마감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
- 이에 대국민 문화서비스 제고 차원에서도 킨치노믹스 필요

3. 컬처노믹스의 주요 추진내용

□ 주요한 과제는 △예술창의기반 조성, △도시문화환경 조성, △도시가치와 경쟁력 제고 등으로 대별

- 이를 위해 서울시는 △유희공간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지역별 특성 및 자원분포 현황에 맞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시민들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곳곳의 문화공간을 조성하며, △서울의 자연과 역사, 사람을 잇는 관광코스를 개발하며, △도시의 가치와 브랜드를 높이는 도시 상징물 조성에 적극 나설 것을 천명

〈표 1〉 서울시 창의문화도시 추진과제

영역	과제
예술적 창의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희시설의 문화예술 창의발신지화 - 역사복원 및 매력 있는 서울만들기 - 문화예술에 대한 기업투자 활성화
도시문화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상징 문화특화지역 육성 - 한강을 서울 상징문화공간으로 - 문화의 갈증을 해소하는 문화의 샘 조성 - 물처럼 공기처럼 흐르는 생활 속에 문화
도시가치와 경쟁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을 최고 디자인 도시로 - 문화 창의를 바탕으로 한 문화산업과 일자리 창출 - 관광객 1,200만 시대로 서울경제 활력 창출

- 컬처노믹스 계획에 의해 새롭게 추진될 주요한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① 서남권 공장지대 내 낡은 공장을 활용한 『Art Factory』 조성

- 근대 산업유산인 공장을 활용, 지역특성에 맞는 복합장르 문화공간을 조성, 창작-교육-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지역특화 발전 유도
- 서울시는 이를 위해 앞으로 총6개소의 Art Factory*를 조성하겠다고 발표

* Art Factory는 본래 영국 게이즈 헤드시에서 발전소를 미술관(Baltic)으로 개조하면서 붙인 이름으로, 과거 공장이었다는 의미와 더불어 예술 창작하는 생산기지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Art Factory라고 칭하였음.

- 금천구 독산동, 중구 예장동, 은평구 녹번동, 영등포 구로 지역, 기타 문화소외지역 등

② 지하철 ‘남부터미널’ 역사의 창작아케이드 조성 및 창작클러스터 조성

- 폐점 상태에 있는 유휴 지하상가를 활용 창작아케이드 조성
 - 남부터미널 지하상가, 신당동 지하상가 등 2곳
- 사유지 공간을 활용한 창작스튜디오 조성
 - 종로구 무학동, 강서구 등촌동, 강서구 화곡동, 서대문구 연희동, 양천구 목동 등 5개소
- 남산문화예술 창작 클러스터 조성
 - 남산 내 드라마센터, 시청 남산별관 등을 창작공간으로 연결하여 남산을 창작단지화

③ 도심 역사복원 및 유네스코 문화유산 ‘역사도시’ 등록

- 성곽복원 등 서울 도심역사의 복원
 - 2015년 역사도시 등록 완료
- 600년 정도 역사를 뛰어넘은 한성 2,000년 역사 복원
 - 한성백제박물관 및 고대역사문화탐방로 조성

④ 정부수반 유적의 문화공간화

-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경교장, 이화장, 장면, 윤보선 대통령 생가, 박정희 가옥, 최규하 가옥 등을 문화공간으로 조성
 - 기타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역사문화공간 조성

〈표 2〉 정부수반 유적 문화공간 조성

대상	조성방향
경교장	김구 주석 거주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로 복원
이화장	이승만 초대정부 조각 본부 당시 모습으로 복원 및 유품전시
장면, 윤보선 생가	4.19 혁명 박물관 조성
박정희 가옥	5.16 전수 역사자료관 조성
최규하 가옥	1980년대 전후 거주 당시 시대를 조망하는 전시공간으로 조성

⑤ 예술지원 및 후원을 위한 다양한 펀드와 보험제도 개발 운영

- Art Fund : 09년까지 200억 원 규모의 펀드 조성
 - 콘텐츠는 있지만, 제작비가 없는 성공 가능성이 있는 작품의 제작 및 (해외) 마케팅 등에 투자
- Art Seed : 서울시에서 일정부분 투자하여 작품을 구입, 활용력 제고를 위한 Seed 조성
- 완성보증보험제도 : 제작비가 없어서 제작이 어려운 작품 등을 대상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서 제작자에게 대출, 누구나 쉽게 작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제도

⑥ 문화자원이 밀집된 문화특화지역 육성

- 도심4축을 특화된 문화공간으로 조성

〈표 3〉 도심4축 문화의 거리 조성

대상	조성개념	조성내용
1축	문화예술특화거리	- 세종로 광화문 광장 조성 - 북창동 관광특구 테마가로 조성 - 남대문 재래시장 정비, 쇼핑문화 관광명소화
2축	관광문화특화거리	- 명동~을지로 첨단 유비쿼터스 공간 조성 - 명동관광특구 가로환경 개선
3축	녹지문화특화거리	- 세운상가 녹지문화공간 조성 - 창경궁~종묘 간 단절구간 복원 추진
4축	복합문화특화거리	- 동대문디자인플라자 & 파크 조성 - 대학로~동대문운동장~남산을 잇는 보행체계 개선 - 흥인지문 역사문화광장 조성

- 또한 문화자원이 밀집된 인사동, 대학로, 홍대 등을 특화지역으로 집중 관리·육성하는 한편, 문화자원이 밀집된 9개 문화지역을 집중 보전

<표 4> 주요 예술자원 밀집지역 현황

지역	범위	밀집현황	도시계획	비고
대학로	동숭동(종로) 1-111 일대	-공연장 96개소, -공연관련 대학(학과) 및 예술단체	문화지구 지정	-대학로문화축제 -문화지구 지정이후 급성장
인사동	관훈동(종로) 197-4일대	-화랑120여개, -골동품·표구점·필방 입주	문화지구 지정	-인사동전통문화축제
홍대 지역	상수동 72-1번지 주변	-미술학원 100여개, 화방 20여개, 출판사 60여개, 아뜰리에 50여개, 클럽43개 등	문화지구 지정 추진	-프린지페스티벌 등 다수 축제 개최 -서울 최대 창의지구
삼청동길	소격동(종로) 43번지 일대	-삼청동길을 중심으로 개인미술관·화랑 73개소, 소형박물관 10개소 위치	도시 설계지구 (일부)	-국립민속박물관, 아트선재 센터 등 입지 -최근 밀집지역으로 성장 중
평창동	평창동(종로) 일대	-화랑12개, 미술관2개, -문학관, 도서관, 공매소, 아뜰리에 각 1개소 분포		-토탈미술관, 서울옥션 위치
청담동	코엑스~ 갤러리아 백화점	-화랑30여개 위치		-패션부티크샵, 자동차 전시장 등 명품상가 위치
신사동 (가로수길)	신사동(강남) 532-8 일대	-화랑13개, 미술학원, 표구상3~4개, 엔틱샵, 디자인관련업종 밀집	지구단위 계획(일부)	-특색 있는 카페 다수 분포 -최근 성장하는 중
삼각지	한강로 1가 주변	-화실공방 7개, 화방화랑 34개, 표구화구 15개 등 화방관련 상가 밀집	지구단위 계획	-열린화랑, 가갤러리, 터화랑 등 -다수의 한식당 분포
낙원 상가	낙원상가	-악기상가 230여개 업체 분포	지구단위 계획	-허리우드극장 (서울필름포럼)
예술의 전당 주변	서초동 700번지 주변	-악기제작소 및 판매상가 70여개 -동서양의 다양한 악기 판매		-예술의전당, DSHall 아리랑TV, 한원미술관 등 예술시설 분포 -외제승용차 매장 확산
답십리	동대문구 답십리4동	-골동품상가 147개소 분포	뉴타운 지정(일부)	
문래동	문래동 철공소 거리	-다수의 예술창작연습실 분포 (무용 및 실험예술 장르)		-철공소와 창작연습실 공존

⑦ 한강르네상스 추진 및 4대 지천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

- 한강 및 수변공간을 시민친화적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워터 프론트(Water Front) 계획을 추진하는 한편, 각 하천을 문화공간으로 조성
- 또한 문화예술용산업무지구 내 세계적 뮤지엄을 유치, 노들섬 문화예술센터 등과 더불어 세계 속에 서울을 상징하는 문화예술 랜드마크 조성

⑧ 문화의 갈증을 해소하는 문화의 샘 조성

- 창동, 어린이대공원, 한남동, 삼청각, 고척동 등에 대규모 문화예술센터 건립

〈표 5〉 도심4축 문화의 거리 조성 세부내용

지역	조성개념	세부내용
창동 열린극장	복합문화공간	- 다목적공연장, 어린이문화체험공간
성북동 삼청각	삼청각 재조성	- 고품격 전통공연, 음식 체험공간
능동 어린이대공원	야외공연장	- 가족단위 야외공연장
한남동	대중음악뮤지컬공연장	- 전용공연장(민자)
고척동	문화체육콤플렉스	- 체육시설, 공연장, 영화관 등

⑨ 하이서울페스티벌 4계절화 및 일상 속 생활문화환경 조성

- 현재 년1회 개최하고 있는 하이서울페스티벌을 4계절 축제로 전환하여 계절별 특색을 드러내는 한편, 일상적인 축제의 도시로 전환
 - 봄 : 궁 축제, 여름 : 한강축제, 가을 : 공연예술 축제, 겨울 : 빛과 미디어 예술 축제
- 또한 일상 속 문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광장 문화프로그램’을 상설로 운영하는 한편, 한강 등에서 다양한 문화공연을 시행하고, 천원의 행복 등 사랑나눔 프로그램의 강화
 - 더불어 문화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학교교육을 통한 문화교육을 활성화하는 한편, 공원 등 녹지공간과 연계한 문화공간 조성

⑩ 서울의 강점을 살리는 e-Sports 등 IT문화 활성화

- e-Sports 경기장을 조성하는 한편, e-Sports Seoul Open 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Digital Music Festival, Mobile Festival 등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 또한 서울디지털콘텐츠센터를 2011까지 조성하는 한편, 영화산업, 디자인 산업, 패션산업 등 서울문화콘텐츠 산업을 집중 육성

⑪ 서울을 최고의 디자인 도시로

- 2008년 서울디자인올림픽피아드를 개최하는 한편, 디자인도시로서 서울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서울서체 및 서울색 등을 개발
- 또한 디자인 서울가로를 조성하는 한편,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야간경관 개선 등을 통해 서울의 이미지와 디자인을 수준을 근본적으로 업그레이드

⑫ 1,200만 관광 창출을 통한 서울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관광명소 업그레이드 및 관광 인프라 개선

- 청계천, 남산 등을 새로운 관광명소로 조성
 - 청계천 : 디지털과 문화가 만나는 새로운 관광명소화
 - 남산르네상스 : 남산을 생태와 예술이 조화한 열린문화공간으로 조성
- 서울만의 독특한 매력을 갖춘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태권도를 테마로 한 관광상품 개발
 - 서울형 전략 산업으로서 의료관광상품개발 및 복합의료관광단지 조성
 - 북경과 서울, 동경을 연결하는 Be-Se-To 관광상품 개발
- 서울의 관광브랜드를 높이는 인프라의 개선 및 다방면의 마케팅 활동 추진
 - 문화중심 공동 브랜드 카드 개발
 -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설립 운영
 - 2010년 서울방문의 해 추진 등

4. 서울 컬처노믹스의 추진, 타당한가?

- 서울시의 컬처노믹스는 서울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지극히 당연한 정책
 - 경기침체의 문제, 급성장의 잔재인 불량한 도시미관과 경관의 정비 문제, 3만 달러 시대 시민의 요구 등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컬처노믹스 추진 필요
 - 그러나 그 방향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증 필요
- 창조도시의 전도사 사사키 마사유키 교수는 <창조하는 도시>(소화)라는 자신의 책에서 창조도시 요건을 다음과 같은 요소로 제시
 - 도심 구시가지를 활용한 창조적 문화공간 개발
 - 역사와 전통을 보존하는 쾌적한 도시공간 리모델링
 - 전통을 바탕으로 한 고부가가치 산업 개발
 -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매력적인 생활공간
 - 지역민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 도시역량의 창조적 발전
 - 시장변화에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 다른 한편, 리처드 플로리다(Richard Florida)교수는 <창조계급의 등장>(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이란 책에서 “창조적인 사람들은 단지 일자리가 있는 곳에 모이지 않고, 창조성의 중심지역, 살고 싶은 지역”에 모인다고 전제하면서, 창조도시가 갖추어야 할 요건을 다음과 같은 7가지로 제시
 - 두터운 노동시장 : 같은 직장에 오래 머무르지 않으면서도 수평적 성공가도를 돕는 고용시장
 - 생활양식 : 휴식과 충전을 위한 문화. 더불어, 밤놀이가 가능한 안전하고 믿을만한 장소와 24시간 도시가 가능한 교통
 - 사회적 상호작용 : 좋은 친구, 생생한 대화, 사회활력을 제공하는 집이나 직장이 아닌 제3지역
 - 다양성 : 다양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이방인에 대한 관용이 보장된 도시
 - 진정성 : 독특하고 독창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도시환경

- 독자성 : 지역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독자적 특질을 갖춘 도시
- 지역의 질 : 지역에 얼마나 매력적인 요소가 있는가 하는 점
 - 무엇이 있는가, 누가 있는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등이 평가의 기준
- 때문에 플로리다 교수는 ‘도가니지수’ (melting pot metros)와 게이지수, 보헤미안 지수 등을 창조도시의 평가기준으로 제시
 - 도가니지수 : 혁신적인 아웃사이드더들이 얼마나 많은가?
 - 지역내 이민자 수(실리콘밸리의 경우 1/4이 외국 태생이라는 게 플로리다 교수의 설명)
 - 게이지수 : 지역이 얼마나 개방적이며 포용적인가?
 - 하이테크 지역은 게이지수가 높다는 것이 플로리다 교수의 분석
 - 보헤미안 지수 : 창의적인 예술을 창출하는 작가, 감독, 디자이너, 음악가, 배우, 화가, 조각가, 사진가, 무용수 등등 예술가의 수
- 이를 종합하면 창의문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기회와 일자리, △개방적인 공간과 다양성의 문화, △다른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아우라, △24시간 즐길 수 있고, 다양한 사람과 즐기며 공존할 수 있는 재미와 유희, △문화적 예술적 창의적 측면에서 브랜드와 이미지 등이 필요
 - 우리가 과연 창의문화도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절대적인 검증 필요

5.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 창의문화도시 측면에서 △일자리 측면, △개방성의 측면, △아우라의 측면, △재미와 유희 측면, △보헤미안 수치 측면 등 각 부문에서 취약한 것이 현재 서울의 여건
 - 문화관련 일자리는 40만 정도에 불과, 같은 창조도시인 런던이나 뉴욕 등에 비해 매우 낮음
 - 아우라는 도시의 미관을 위협하는 수준이고, 24시간 높고 즐길만한 도시공간이 절대 부족하며, 문화예술인은 우리나라 예술가도 서울에서 활동하길 꺼리는 실정
 - 외국의 창의적인 보헤미안들을 유입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 필요
- 후진국형 창의문화도시 모델은 이슈를 먼저 제기하는 한편, 이 이슈를 통해 시민을 설득하고, 세계적인 예술인구를 유치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 보편적임
 - 스페인 빌바오의 경우, 테러도시라는 이미지를 없애고자 구겐하임 미술관을 유치한 다음 이 미술관 유치로 단 한번에 테러도시에서 문화도시로 전환한 사례
 - 이제 모든 주민은 자신의 도시를 문화도시로 인식하고, 도시에 대해 높은 자긍심(92%)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
 - 같은 대도시인 영국의 런던 또한 배터시(Battersea) 화력발전소를 <테이트모던갤러리>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창조도시로 급부상
 - 테이트갤러리를 통해 세계적 이슈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경제 희생에도 노력, 런던의 최대 취약지역인 Southwark 지역을 일순간에 세계적 명소로 조성
 - 창조도시로의 전환은 세계가 주목할 만한 이슈를 제공하는데서 출발하는 것이 타당
 - 그렇다면 서울은 과연 어떤 이슈를 제공할 것인가?
- 다른 한편 창조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도시환경 자체를 창의중심적으로 바꾸는 노력 필요
 - 런던은 <세계창조수도>계획을 통해 템즈강 주변과 런던 지역 곳곳을 창의의 중심으로 바꾸려는 노력 추진
 - 특히 도시 유희공간 및 노후시설 등을 문화공간으로 바꾸는 ‘접근성’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환경을 창조적으로 바꾸려는 것이 최근 런던의 노력
 - 뉴욕 또한 맨하탄 지역을 개발하면서 지역 자체를 창의적으로 개발한다는 개념을 제시

<표 6> 창조계층이 선호하는 로우 맨하탄 재건방안

범주	창조계층 선호 도시	로우 맨하탄 재건 방향
쾌적 환경 조성	창조적 노동자는 관광객처럼 도시를 활보	살고 일하고 배우고 노는 경계 희미. 소비, 경험, 오락의 도시
문화시설 예술활동	창조계층은 바쁜 일정에 참여가능한 오락 선호	공원, 자전거 보행자 도로 등 매력적인 도시 건설
주택공급	임대료가 비싸도 창조계층은 기꺼이 비용 지불	더 많은 주택·빌딩 건설 필수
Compact City	모든 것이 가까이에 있어서 시간절약 가능한 도시	혼합용도지구 개발 도모
질 높은 교육환경	대학은 기술생산자, 인재 유인장소, 창조적 시대 주요 토대	대학·기관간 창조적 상호작용 강화. 새로운 동맹 뿌리내림
교통여건	통근시간 업무 또는 휴식 가능한 빠른 운송수단	철도, 수상교통 개발

자료: Rivlin, A. & Scanlon, R., 2002, Economic Development Working Group Report: Prepared for the Civic Alliance to Rebuild Downtown New York

□ 우리 또한 도시 곳곳을 창의적 거점으로 만들려는 노력 필요

- 우리의 경우, 특히 유교적 전통이 강한 만큼, 창의인구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개방성과 포용성이 존중되는 공간 개발 필요
- 문화자원이 밀집된 지역(홍대, 대학로), 다양한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이 우선되는 지역(삼청동, 서래마을, 서초동 예술의 전당 주변, 청담동), 창의적 보헤미안들이 밀집되어 산업적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역삼동, 구로디지털산업단지, 상암 지역) 등을 창의적 거점으로 조성, 다양한 예술가 및 창의계급을 유치하는 노력 필요

□ 마지막으로 서울시가 취해야 할 전략은 다양한 문화클러스터를 조성하는 한편, 아시아 도시들과의 연계망 조성을 통해 창의의 허브도시로서 서울을 만드는 것

- 최근 북경 및 홍콩, 상해, 싱가포르, 동경 등 다양한 도시들이 창의문화도시를 위한 프로젝트 추진 시작
- 북경은 다산쯔의 성공에 힘입어 북경을 창의예술가 중심도시로 만들고자 하고 있으며,
- 홍콩은 주룽반도 개발을 통해 문화산업도시로서 옛 영광을 다시 찾으려하고 있고,
- 동경은 롯본기 힐즈 신국립미술관과 산토리미술관, 모리미술관을 잇는 아트트라이앵글 조성을 통해 창의문화도시로 나아가가고자 노력

- 이에 발맞추어 서울의 클러스터를 강화하고 아시아 도시들과 연계하여 서울을 창의 Hub & Spoke로 만들려는 노력 필요
- 아시아 창의문화도시 네트워크 조성 및 서울과 아시아를 잇는 창의문화교류 시스템을 확보가 필요

6. 결론

- 창의문화도시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
 - 문화예술의 발전을 통해 도시경제를 활성화하고, 문화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목표를 담은 만큼 목표를 도달하기 위한 체계적 접근 필요
- 서울의 경우, 창의성은 높은 반면 인프라가 취약하고 생활 속에서 문화가 정착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
 - 창의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통해 생활 속에 문화가 정착하도록 함으로써 서울의 문화를 육성하려는 노력이 곧 창의문화도시 전략
- 세계 속에 이슈를 만들고, 창의인구를 유치하는 한편, 창의적 거점을 조성, 창의인구가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서울 자체를 창의문화도시를 만들어야 성공가능
 - 서울은 가능성이 많은 만큼 아시아 관련 도시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창의문화도시로 나아가는 노력 필요